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37 / 2007.11.14

□ 미국, 비축유 증대 추진

- 미 에너지부는 전략비축유 규모를 증대하기 위해 걸프만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한 로열티 대신 석유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음.
 - 이를 위해 에너지부는 Shell Trading Co., Sunoco Logistics, BP와 향후 6개월간 7만 b/d, 총 1,230만 배럴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일부 민주당 의원 및 에너지 전문가들은 7만 b/d는 절대적으로 큰 양은 아니지만 OPEC 국가에 증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이번 결정은 석유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가를 배럴당 \$100까지 상승시키는 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에너지부는 의회의 전략비축유 유지 및 확대 규정의 실행이라고 발표함.
 - 'Energy Policy Act of 2005'에 따르면, 에너지부가 전략비축유를 10억 배럴로 증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현재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6억 9,400만 배럴임.

(U.S. Department of Energy, 2007.11.8)

NEWS

- 미국, 비축유 증대 추진
- 브라질, 해상광구서 유전 발견
- 베네수엘라, 자국 석유생산량 감소 부인
- 미국, 비축유 증대 희망
- 미국 매사추세츠,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석탄가격 상승으로 석탄산업 다시 활기
- 스페인, 유럽 남부지역 가스공급의 중심부로 부상 가능성
- 네덜란드 Gasunie, Nord Stream 프로젝트 참여
- 사우디아라비아 SABIC, 석유화학부문 3년간 \$293억 투자
- 독일 4대 전력업체, 가격담합
- 리비아, 장기 전력수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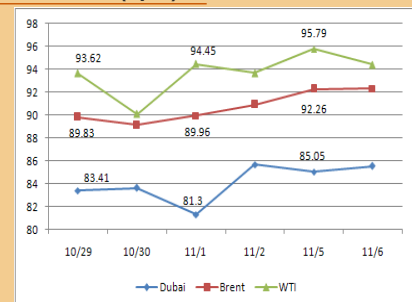
ANALYSIS

- 유가 상승의 요인 분석
- 인도 Petronet, 알제리 LNG 도입 진행
- 국제 고유가로 원자력발전 확대전망

REPORT

-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11월)

Oil Prices (Spot)



자료 : 한국석유공사



ASIA & AMERICA

□ 브라질, 해상광구서 유전 발견

- 브라질 Petrobras는 거대 유전을 발견함에 따라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은 50% 증가할 것이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발표함.
- Santos만의 Tupi 해상광구에 위치한 이 신규 유전에는 약 50억~8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발견된 석유는 저황 경질유로서 북해의 Brent유와 흡사한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심해유전에서의 시추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12년에서 '13년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브라질의 석유 매장량은 이번 유전발견을 통해 현재 세계 17위(144억 배럴)에서 10위권 내로의 진입이 예상됨.
- 현재 동 프로젝트의 지분구조는 Petrobras 65%, 영국의 BG 25%, 포르투갈의 Galp Energia 10%임.

(EFE, 2007.11.8)

□ 베네수엘라, 자국 석유생산량 감소 부인

- PDVSA는 국가재정위원회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생산량 감소설을 부인하며 현 생산량은 계속하여 320만 b/d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함.
- 베네수엘라는 '08년 석유 생산량을 363.7만 b/d로,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량을 290만 b/d로 예상함.
- 하지만 ODH Consulting 측은 분석결과 '06년 생산량은 294만 b/d이며, 올해 생산량은 약 285만 b/d일 것이라고 함.
- PDVSA는 목표생산량 달성을 위하여 '06년 \$60억에서 올해 \$100억으로 투자액을 상향조정하였음.
- 이밖에도 PDVSA는 OPEC의 공급시스템을 준수하고 국가석유개발계획



을 계속하여 추진할 것을 밝힘.

(Prensa Latina, 2007.11.5)

□ 미국, 비축유 증대 희망

- 미 에너지부는 전략적 비축유 규모를 증대하기 위해 걸프만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는 대신, 석유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음.
- 이를 위해 에너지부는 Shell Trading Co., Sunoco Logistics, BP와 향후 6개월간 7만 b/d, 총 1,230만 배럴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일부 민주당 의원 및 에너지 전문가들은 7만 b/d는 절대적으로 큰 양은 아니지만 OPEC 국가에 증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이번 결정은 석유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가를 배럴당 \$100까지 상승시키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에너지부는 의회의 전략적 비축유 유지 및 확대 규정의 실행이라고 발표함.
- 'Energy Policy Act of 2005'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전략적 비축유를 10억 배럴로 증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현재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는 6억 9,400만 배럴임.

(U.S. Department of Energy, 2007.11.8)

□ 미국 매사추세츠,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법안 제출

- 매사추세츠는 오는 '12년까지 주에서 가정용 난방연료와 디젤연료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음.
- 이 법안은 모든 디젤과 난방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연료에 기반을 둔 신재생에너지를 '10년까지 최소한 2% 이상, '13년까지 5%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용 난방연료에 바이오연료 기준을 처음으로 확립한 것임.



- 또한, 이 법안은 에탄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숲이나 농업폐기물에서 추출한 에탄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할 것이고 이러한 면세 혜택은 미국내에서의 첫 시도임.
- 이 법안의 실행으로 매사추세츠는 국내외 청정에너지기술의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음.

(Platts, 2007.11.7)

EUROPE, MIDDLE EAST & AFRICA

□ 영국, 석탄가격 상승으로 석탄산업 다시 활기

- '80년대에 고비용과 수요감소로 석탄산업은 급격히 쇠퇴했으나 최근 유가상승으로 석탄가격이 인상되어 영국 탄광이 다시 활기를 맞고 있음.
- 10월 말 기준으로 유럽 지역의 석탄가격은 톤당 \$130로 올해 초에 비해 2배, '80년대 말에 비해 5배로 상승했음.
- 최근 한 독일 발전회사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이뤄지던 석탄공급계약을 10년 단위로 계약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석탄업계나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한 점이 직접적인 석탄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석유를 비롯한 다른 에너지자원의 가격상승 역시 석탄가격을 인상시켰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영국 석탄산업계의 문제는 환경오염이 커서 정부지원을 받기가 힘들며,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임.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7.11.6)

□ 스페인, 유럽 남부지역 가스공급의 중심부로 부상 가능성

- 스페인 에너지위원회(CNE)는 스페인이 유럽 남부의 가스공급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함.



- 스페인은 이집트와 알제리, 카타르, 나이지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같은 다양한 가스 공급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독일처럼 북해, 러시아에만 의존하는 국가들보다 유리함.
- 이밖에도 스페인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가스관 및 수척의 수송선을 보유하고 있음.
- 유럽의 천연가스수요가 총 에너지수요에 차지하는 비중은 10%인 반면 스페인은 68%에 달함.
- 스페인은 인근 유럽 국가를 연결하는 가스관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완공시에는 대 유럽 가스공급량이 현재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FE, 2007.11.8)

□ 네덜란드 Gasunie, Nord Stream 프로젝트 참여

- 가스프롬은 발틱해를 잇는 Nord Stream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마지막 참여기업으로 네덜란드의 Gasunie를 선정하였음.
- 네덜란드 가스 수송기업인 Gasunie는 9%의 지분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스프롬은 Gasunie 소유의 BBL 파이프라인의 9% 지분을 받게 됨.
- BBL은 네덜란드의 Balgzand에서 영국의 Bacton을 잇는 파이프라인으로, 이 구간의 수송용량은 200억 m³임.
 - ※ 러시아-독일을 잇는 총 746마일의 Nord Stream 건설을 위해 \$73억 4백만이 소요될 예정이며, 첫 번째 구간은 '10년 완공되어 연간 275억 m³를 수송, 두 번째 구간이 완공되면 수송 용량은 55억 m³이 증대될 예정임.
- Gasunie는 가스프롬에 네덜란드 가스네트워크 사용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럽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가스프롬과 공동참여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 이번 계약으로 가스프롬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북서 유럽지역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UPI, 2007.11.8)



□ 사우디아라비아 SABIC, 석유화학부문 3년간 \$293억 투자

- SABIC(Saudi Arabian Basic Industries Corporation)은 석유화학부문에 3년간 \$293억 4천만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 동 투자계획은 Yansab(Yanbu National Petrochemicals Co.)사가 운영하게 되는 Yanbu 지역의 새로운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포함하고 있음.
 - 신규 플랜트는 '08년 말부터 연간 4백만 톤의 에틸렌, 에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예정임.
- SABIC은 Jubail과 Yanbu 지역에 가스발전소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Jubail 지역에 '10년부터 연간 6백만 톤의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글리콜 등을 생산하게 될 복합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SABIC은 Ma'adin 사우디 광물공사와 함께 인산염광물을 개발할 예정임.
 - 걸프해안의 라오스 주와르 지역의 인산염 시멘트와 고품질인산염을 연간 290만 톤 생산하기 위한 공장건설을 추진 중임.

(Moheet, 2007.11.6)

□ 독일 4대 전력업체, 가격담합

- 독일 주간지 Spiegel에 따르면 독일 전력기업 E.ON과 RWE, EnBW(프랑스 EDF의 지분보유율 45%), 스웨덴 Vatenfall은 '03~'06년 사이에 EU의 에너지시장 개방정책에 어긋나는 가격담합을 함.
 - '06년 11월에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 EU가 공동으로 불법적인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되어 조사가 진행 중임.
 - 독일 전력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동 기업들은 정기적인 회담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프랑스와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의 전력기업들 또한 가담한 것으로 밝혀짐.
- E.ON은 '08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10%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경제관리부 장관은 에너지 공급기업의 가격을 감독하는 기관을 창설하



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Le Monde, 2007.11.7)

□ 리비아, 장기 전력수급 계획

- 리비아의 에너지 장기전망에 따르면, 리비아는 '10년 8,900 MW, '12년 11,176 MW, '15년 14,049 MW의 발전설비가 부족할 전망이다.
- 전력 및 수질, 가스 위원회 계획부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원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이미 체결되었거나 체결 계획인 계약은 약 60억 디나르 (\$1=1.250디나르)이며, 송배전망에 투자될 예정이며, 동 계약에는 발전소 건설 계약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가스생산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점검 중인데, 남부지역 Al-Wafa 가스전에 5억 2,300만 디나르를 투자하여 길이 579km의 가스관 건설할 예정이다.
 - Serir 또는 Al-Intissar 가스전에는 1억 1,600만 디나르를 투자하여 250km의 가스관을 건설할 것이며, 470km의 Benghazi 가스관에는 4억 9,700만 디나르가 투자될 전망이다.

(PANAPRESS, 2007.11.6)



1. 유가 상승의 요인 분석

□ 개요

- EIA는 11월 6일 단기 에너지전망의 부록에서 최근 세계유가 상승 요인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발표함.

□ 세부내용

- 고유가의 주요 요인
 - 최근 석유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WTI 기준 국제 유가는 '90년대 \$20에서 '07년 10월 \$85가 되었으며 올해 말 \$9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EIA는 현재의 고유가의 주요원인으로 다음 요인들을 들고 있음.
 - 석유 다소비 부문 주도의 세계경제성장, 비OPEC 국가로부터의 석유공급 부족, OPEC의 생산량 변경, OPEC의 낮은 잉여생산능력, OECD의 낮은 재고율, 세계 정제능력 부족, 지정학적 불안의 지속과 석유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 세계 경제성장 추세의 영향
 - 석유소비가 많은 지역인 미국과 중국, 중동지역 등에서의 석유소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 2개국의 소비 증가가 총 세계 석유소비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함.
 - 유가가 상승하자 산유국인 중동 및 러시아의 국내경기호조로 국내 석유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한편 달러화의 약세로 석유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한 것도 석유소비 증가의 원인임.
- 기대에 못미치는 비OPEC 국가의 증산
 - 비OPEC 국가의 증산이 세계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갭은 OPEC이나 재고물량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석유수급이



균형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 유가는 상승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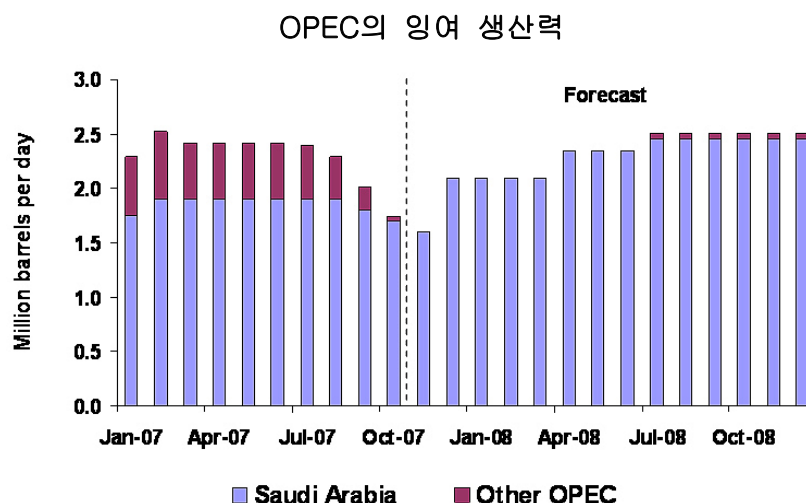
- 또한 석유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므로, 수급균형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의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음.
- OPEC 회원국들은 '07년 중 상당기간 동안 감산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재고율 감소와 가격 상승이 초래됨.
- 비OPEC 국가의 생산은 '06년 20만 b/d 증가하였고, '07년과 '08년에 각각 60만 b/d, 9만 b/d 증가할 예정이나, 이는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OPEC의 생산량 변경

- OPEC은 OECD 재고증가와 가격하락을 들어 '06년 11월과 '07년 2월에 생산량을 각각 120만 b/d, 50만 b/d 감소한 바 있으며, 이와같은 감산으로 세계 유가하락세가 상승세로 돌아섬.
-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OECD 재고가 하락하자 다시 OPEC은 50만 b/d 증산을 결정하였으나, 현 유가상승세를 멈추지는 못했음.

○ OPEC의 잉여 생산능력

- 사우디를 제외한 OPEC 회원국의 낮은 잉여 생산능력으로는 시장의 수급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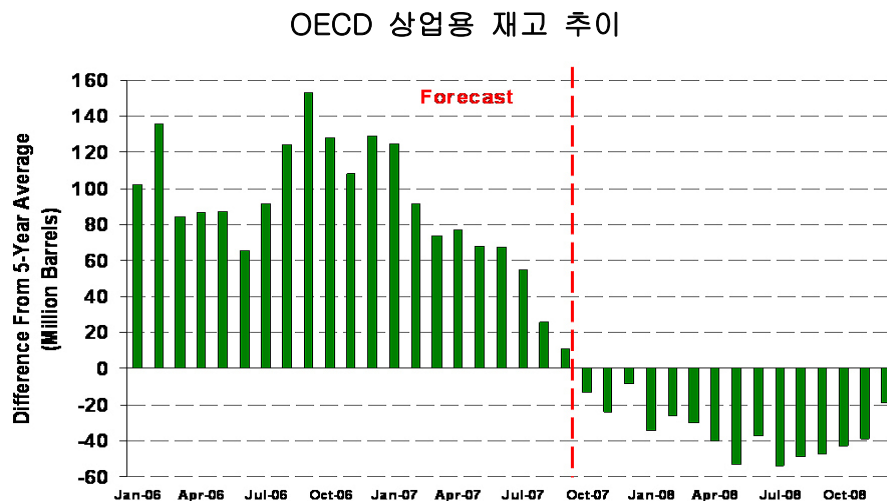


- EIA는 현 세계 석유소비 증가와 비OPEC 국가의 증산부족을 고려할 때, OPEC의 적정 생산량은 '08년에 3,150만 b/d로 보고 있으며, 세계 잉여 생산능력은 여전히 2~3백만 b/d로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함.



○ OECD의 재고감소

- OECD 상업용 재고는 '06년 9월 말에 5년 평균치보다 1억 5,000만 배럴 높은 수준이었으나, EIA는 '07년 말 이 수치는 5년 평균치보다 2,000만 배럴 낮은 수준이며, 이 추세는 '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정제산업의 잉여생산력 감소

- 석유수급이 비정상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에 초과 정제설비의 부족은 그만큼 유동성이 없다는 것임.
- OECD 유럽 국가의 상업용 재고 수준은 '07년 5~8월간 40만 배럴 감소한 바 있음.

○ 지정학적 불안 요인

-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과거 경제제재, 저투자, 전쟁 등으로 정상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최근 터키-쿠르드간 분쟁 역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
- 세계 8위의 석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에서는 군사 분쟁으로 54만7,000 b/d의 생산이 중단된 상황임.
-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문제로 '02년 12월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최근 석유산업의 국유화 단행이후 석유수익이 다른 부문으로 투자됨에 따라 생산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세계 4위의 석유 수출국인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세계 석유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음.

□ 시사점

- EIA는 고유가의 주요 요인으로 석유 다소비 부문 주도의 세계경제성장, 비OPEC 국가로부터의 석유공급 부족, OPEC의 생산량 변경, OPEC의 낮은 잉여생산능력, OECD의 낮은 재고율, 세계 정제능력 부족, 지정학적 불안의 지속과 석유공급에 대한 불안심리
- 경제성장 둔화가 유가의 추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비OPEC 국가의 공급량 부족과 낮은 재고율, 정제능력 부족과 같은 변수는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우므로 현재의 고유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EIA, 2007.11)

2. 인도 Petronet, 알제리 LNG 도입 진행

□ 개요

- 인도의 국영기업 Petronet은 알제리 국영기업 Sonatrach와 '11년 수입을 시작하는 장기 LNG 구매계약 협상을 진행중임.

□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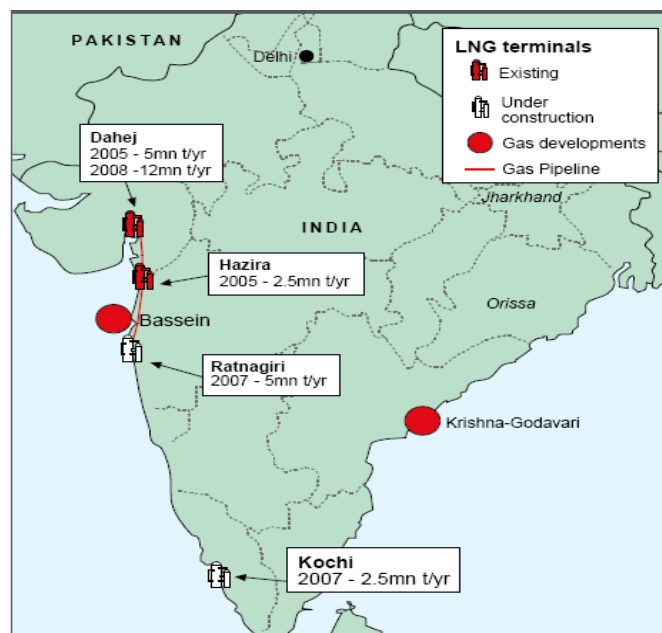
- 인도 Petronet와 알제리 Sonatrach와의 거래배경
 - Petronet LNG는 Sonatrach와 25년간 연간 125만 톤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 동 계약이 체결되면 알제리는 미국, 유럽시장이 아닌 아시아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것임.
 - 미국, 유럽 구매자와의 몇몇 계약은 종료되었으나 재계약되지 않았음. 벨기에와의 연간 330만 톤의 계약은 '06년 9월 말 종료되었으며, 이후



벨기에는 LNG 수입을 카타르로 전환함.

- 이에 따라 알제리는 상당한 초과용량을 지닌 상태임. 이러한 초과용량으로 인해 신규거래가 가능해짐.
- 현재 인도는 2개의 LNG 수입기지(Dahej, Hazira)가 있으며, 남부에 위치한 Kochi 인수기지는 Petronet이 추진하고 있음. '11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용량은 연간 250만 톤 임.
- 따라서 Kochi 인수기지에 공급하기 위해 중동 및 아·태 공급원으로부터의 물량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 인도와 이란의 Pars LNG와의 거래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가고 있음. 프랑스 정부의 이란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견제로 프랑스 Total의 Pars LNG 프로젝트 착수가 어려워짐.

인도의 LNG 인프라



○ Petronet의 LNG 사업현황

- Petronet은 호주 Gorgon 운영자인 Chevron사이의 250~350만 톤/년 규모의 Kochi 프로젝트에 공급거래는 가격불일치로 협상이 난항에 처함.
- 인도 전력회사 National Power의 Kayamkulam 발전소는 350MW에서 1,950MW로 확장할 계획에 따라 Kochi지역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 Petronet은 RasGas로부터 660만 톤/년의 LNG를 구매하였으며, 1,040MW Dabhol 발전소의 운영사인 Ratnagiri Gas and Power와 '09년까지 125만 톤/년의 공급계약을 체결함.
- '09년 이후 Delhi에 위치한 Pragati Power의 2,100MW Bhavna 발전소('10년 가동 예정)로 공급물량을 전환할 계획임. Pragati Power는 Dahej 인수기지에 1,500MW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시사점

- 인도는 LNG 수입에 있어서 중동, 아프리카 접근이 아·태 지역보다 지리적으로 유리하며 증가하는 수요충족을 위해 현재의 높은 LNG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강화한다면 LNG 수출국가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반면에 중동의 LNG 프로젝트 개발 지연과 인도내 인프라 설비부족은 천연가스 수급에 위험요소로 분석됨.

3. 국제 고유가로 원자력발전 확대전망

□ 개요

-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사고와 방사선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문제로 논쟁의 대상이었던 원자력발전이 근래 국제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안보에 대한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음.

□ 세부내용

- 미국과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불가리아는 여러 단계의 신규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와 프랑스는 이미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중임.



- 대부분의 동·중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에너지 의존도 증가로 원자력발전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임.
- 지난 10월 루마니아는 70만 kW급 Cernavoda 2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였으며 노형(爐型)은 캐나다 AECL사의 가압중수로임.
- 핀란드의 160만 kW Olkiluoto 3 원자력발전소는 '11년에, 그리고 북 프랑스의 Flamanville 3 원자력발전소는 '12년 가동할 예정임. 두 나라의 노형은 최신 프랑스 Areva사의 가압경수로임.
- 한편, 불가리아도 기존 원자로를 대체, '14년까지 총 200만 kW급 원자력발전소를 Belene에 건립할 계획임.
- 미국과 중국도 조만간 대규모 신규 원자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예정임.
 - 중국은 '20년까지 30여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전체 발전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함)하고 있음. 현재 일본 Toshiba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발전설비 제조업체인 Westinghouse사가 중국 Shangdong과 Zhejiang성에 2개씩의 원자력발전소를 '13년 가동을 목적으로 건설 중임
 - 9월 미국 뉴저지주의 NRG Energy사는 '79년 스리마일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거의 30년만에 텍사스주에 '14~'15년 가동 예정으로 270만 k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를 신청함.

□ 시사점

- 국제 유가급등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음.
- 국내에서도 이같은 감안하여, 원자력의 적정 전원믹스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Financial Times, 2007.11.9)



1.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11월호)

□ 개요

-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는 국내외 에너지원별 수급 및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다룬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를 11월 6일 발표하였음.

□ 세부내용

- 세계 석유수급 전망
 - '07년 4/4분기 석유소비는 중국, 브라질, 미국, 중동 지역의 소비강세로 전년 동기보다 180만 b/d 증가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은 현재 석유소비의 증가를 완화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b/d)

구분	2006	2007	2008
수요(A)	84.66	85.80	87.26
OPEC 공급(B)*	35.29	34.89	36.52
비OPEC 공급(C)	49.31	49.91	50.82
공급(B+C)	84.60	84.80	87.34
재고변동**	-0.06	-1.00	0.08

* OPEC 공급은 앙골라 포함, OPEC 12개국 공급량

**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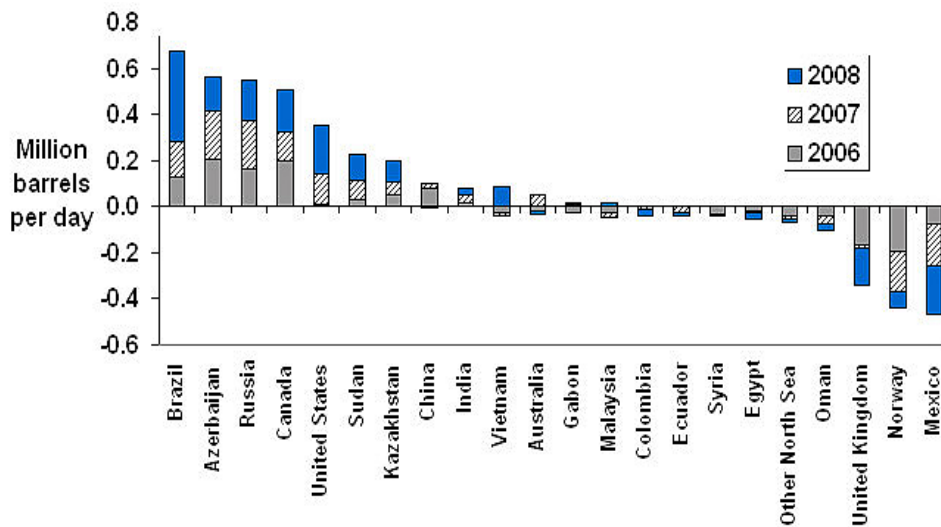
- EIA는 OPEC이 11월부터 50만 b/d를 증산하고 있지만, 수요강세와 잉여생산능력 부족, 낮은 재고율,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현재의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OPEC의 증산과 더불어 앙골라에서의 생산량 증가로 OPEC의 총 석유 생산량은 600,000 b/d 증가할 전망이다.
- 그 외 여러 국가에서도 소량 증산할 예정이지만, 이는 11월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UAE의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하는 수준이 될 것임.
- OPEC은 추가적 증산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지만, EIA는 '08년



OPEC의 생산량이 700,000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비OPEC의 '08년 석유생산은 90만 b/d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 증가분은 멕시코, 영국, 노르웨이, 이집트의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시키는 수준으로 분석됨.
- '08년에는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에서의 증산이 예측되며, 이는 비OPEC 생산량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08년 비OPEC 국가별 생산량 증가



○ 유가 전망

- 국제 평균유가는(WTI 기준) '07년과 '08년에 각각 \$71.36/bbl, \$80.0/bbl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0월 예측치보다 각각 \$2.52/bbl, \$6.50/bbl 상향 조정된 것임.
- WTI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타이트한 세계 석유수급 상황과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공급 불안임.
- '06년 미국 경제성장률 2.9%에 비해 '07년, '08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전망되고 있으며, EIA는 이러한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세가 현재의 고유가 추세를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함.

○ 미국 석유수급 전망

- '07년 미국의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0.5% 증가한 2,080만 b/d, '08년에는



1.0% 증가하여 2,100만 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07년 석유생산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510만 b/d가 될 전망이다.
- '07년 말 Atlantis 심해 및 Thunderhorse 플랫폼에서 석유생산이 개시됨에 따라, '08년 석유 생산량은 1.9% 증가하여 520만 b/d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천연가스 수급 전망

- '07년 총 천연가스 소비는 올해 초 가정, 상업, 발전부문의 소비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4.5% 증가한 62.20 bcf/d, '08년에는 0.9% 증가한 62.75 bcf/d를 기록할 전망이다.
- '08년 가정, 상업, 발전 부문의 소비는 각각 2.0%, 0.9%,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산업부문의 천연가스 소비는 '07년 0.7% 감소에 이어 '08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
- 미국의 '07년 총 천연가스 생산량은 1.4% 증가한 51.45 bcf/d, '08년에는 1.3% 증가한 52.0 bcf/d를 기록할 전망이다.
- '07년 멕시코만 천연가스 생산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전년대비 2.8% 감소할 전망이나, '08년에는 심해 자원개발로 7.4% 증가할 전망이다.
- Lower-48 육상가스전의 '07년 생산량은 신규 가스전 개발로 인해 2.2%, '08년에 0.3% 증가할 전망이다.
- '07년 LNG 수입량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2.22 bcf가 될 전망이며, '08년에는 24% 증가한 2.76 bcf를 기록할 전망이다.
- 지진 및 원전사고로 인해 LNG 수요가 급증한 일본을 주축으로 세계 LNG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LNG 수입 증가분은 현저히 감소하였음.

○ 천연가스 가격 전망

- '07년 10월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6.94/Mcf으로, 이는 동절기에 최고에 달해 '08년 1월에는 8.65/Mcf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07년 및 '08년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각각 \$7.30/Mcf, \$8.01/Mcf



로 예측됨.

○ 전력 수급 및 가격 전망

- '07년 총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2.1%, '08년에는 0.5% 증가할 전망이다.
- '07년 가정용 평균 전력가격은 10.6 ¢/kWh이 될 것이며, 발전용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해 '08년 전력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상업용 전력가격은 '07년 9.6 ¢/kWh, '08년 9.8 ¢/kWh를 기록할 전망이다.

○ 석탄수급 전망

- 총 석탄소비는 '07년 11억 3,080만 short ton, '08년 11억 3,420만 short ton을 기록할 전망이다.
- 전력부문의 석탄 소비는 미국 석탄 소비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07년 1.6% 상승할 전망이다.
- '07년 석탄생산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11억 3,940만 short ton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08년에는 0.5% 증가한 11억3,810만 short ton을 기록할 전망이다.

□ 시사점

- EIA는 '07년, '08년 국제 평균유가(WTI 기준)를 각각 \$71.36/bbl, \$80.0/bbl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10월 예측치보다 각각 \$2.52/bbl, \$6.50/bbl 상승한 것임.
- 이는 타이트한 세계 석유수급 상황 및 중동지역의 공급 불안정이 반영된 것임.

(EIA, 2007.11)